

첨단 전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정보화 사회 촉진

본회가 지난 4월 20일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76년 전자수출입국을 다짐하면서 발족된지

어느덧 20여 성상을 거치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의 구심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게됐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자산업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법령 및 규제조치의 개정,

전자부품 육성방안 수립·시행, 전자산업 5개년 발전 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전자산업 고도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회가 업계의 역량을 집결 타개해 나아갈 과제도

많이 산적해 있다. 이에 앞으로 우리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본회의 역할과 위상 등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본고는 구자학 본회 회장 인터뷰를 통해서

전자진흥회의 새로운 역할을 조명해 보았다.<편집자 주>

문 전자산업진흥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구자학 회장께서 갖고 계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진흥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함으로써 이제 성년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감개가 무량함을 느끼면서 오늘의 전자산업 그리고 진흥회가 있기까지 같이 노력해 온 회원사 여러분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흥회가

창립되던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많은 유휴인력과 열심히 일해 잘 살고 싶은 의욕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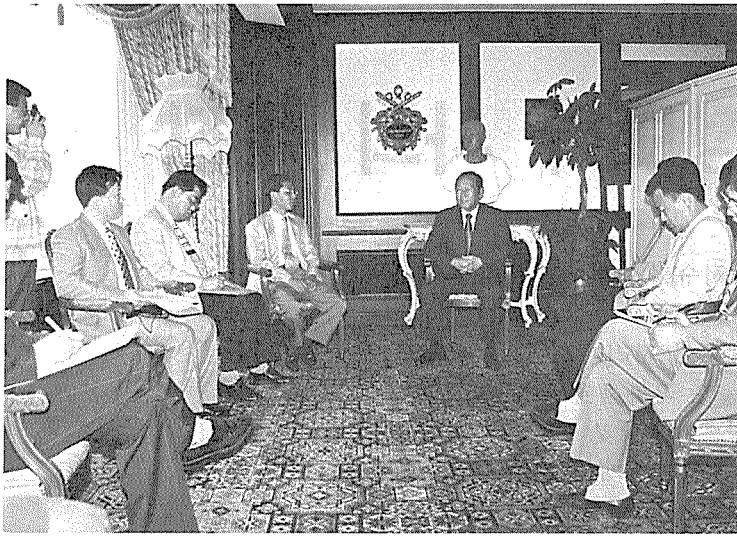
그러니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수출중대로 경제발전에도 모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전자산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정부와 기업인은 물론이고 국민적 컨센센스가 모여져 전자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정했고 이러한 전자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70년에 만들어진 전자수출조합을 모태로 전자산업진흥회를 창립

한 것입니다.

그후 79년에 정부의 전자산업진흥기관인 한국정밀기기센터와 1980년에 전기용품제조협회를 흡수통합 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의 유일한 전자산업진흥기관으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진흥회가 창립되었던 76년만 해도 우리 전자산업의 생산과 수출은 10억불에 불과했고 그 내용도 국내 외국인 기업들에 의한 조립생산이 대부분이었으며 국내기업은 라디오, 흑백TV가 생산의 주종품이었습니다.

진흥회가 창립되어 칼라TV



방영, 전자공업진흥법 개정, 반도체산업 육성, 컴퓨터 국산화 등 그 동안에 많은 활동을 통해 연평균 20%라는 경이적인 고도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이제 전자산업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35%를 차지하는 성장 1위 산업으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었고 생산규모면에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대 전자산업국의 위치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전자산업의 수출은 500억불을 넘어 560억불에 이르게 될 전망이며 컴퓨터 모니터, 위성 방송수신기, CPT, 비디오 테이프 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반도체의 256MDRAM, 전자부품의 대형 LCD, 정보통신의 CDMA 이동무선전화시스

템 등은 세계 선진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전세계 600여 곳에 우리 공장과 연구 및 판매법인이 나감으로써 한국전자산업이 세계화의 기반을 닦는 등 20년만에 참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54만여 전자산업인들이 불철주야로 시장개척,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 피땀어린 노력을 해 온 결과라고 보며 그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오늘날에 진흥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국내외 모든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 지난 20년동안 진흥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난 20년의 진흥회 역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제품의 수출증대와 수입선다변화 및 수입추천 등을 통해 전자산업의 수요확대와 국산화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수출증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한국전자전개최는 물론 해외 유명전자전시회 참가로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나섰으며 국내 전자제품 카다로그 및 디렉토리를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포하는 등 해외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에서의 수입규제 사전예방을 위하여 업계간 협력을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하여 건전한 수출 질서를 도모하였습니다.

진흥회에서는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부품의 국산화로 우리 전자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제 가전산업은 세계 2위국으로서 오늘날에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추천제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개발하면 외국에서 저가공세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매우 힘들게 개발하여도 판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흥회에서 동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국내 개발 부품의 국내공급을 유도하여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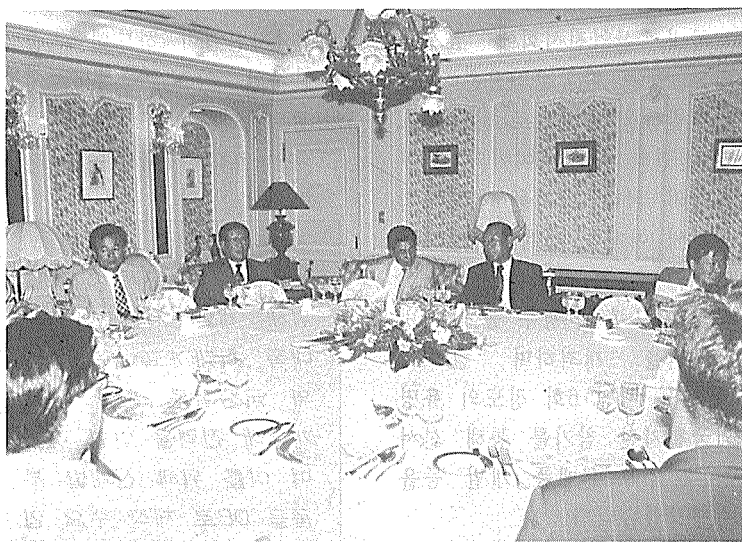
는 직수출까지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회원사들의 애로타개와 전자산업 발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펴왔습니다.

예컨대 흑백TV시대에 칼라 TV의 조기방영 촉구, 전자공업 진흥법 개정을 통한 전자공업 진흥기금 조성지원, 가전제품의 특소세 인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재 및 원자재 관세감면, 국산화 촉진을 위한 수출입추진,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업발전기금 지원,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자관련 대학정원 확대, HDTV 연구개발 사업 조성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화 촉진법 제정, 이동무선전화의 가입설비비 폐지 등 행정규제 완화 사업 등을 들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산업에 관한 각종 조사를 통해 전자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정책 및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왔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자산업에 관한 통계기관으로 지정되어 매일 350여품목의 생산, 수출 등 16개항의 통계를 작성하고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36개국의 전자산업통계를 조사해 이를 배포하고 컴퓨터 보급 등 연평균 30여종의 조사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매년 전자산업의 단기 전망을 조사, 제시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해 5년 단위로 전자



산업 중장기 전망 등을 작성, 보급하고 월간 「월간진흥」지 등 연간 20여종의 각종 자료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국내 전자산업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자료실을 통하여 회원사에 신속히 제공해 왔습니다.

넷째, 전자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자료확대와 수출증대 등을 도모해 왔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시장개방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협의회를 구성, 이를 주축으로 업계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며 미국, EU 등의 현지 변호사 고용 등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전자산업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해 수입규제를 예방토록 하며 해외 투자협의회를 구성, 현지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전자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경영 체제 구축을 도모하였으며,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업계와 함께 시장 및 투자조사단을 매년 여러차례에 걸쳐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효율적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및 연구조합 등을 설립해 업계공동의 연구개발 사업을 조성,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기술이나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업계공동의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진흥회는 연구소, 연구조합 등을 설립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여섯째, 한국전자전을 세계4대 전자전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시장개척과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였습니다.

국내 산업전시회에 효시가 되고 있는 한국전자전은 매년 신개발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약6천명의 외국바이어와 20여 만명의 국내 고객을 참관시킴으로써 이제는 세계4대 전자전의 하나로 그 위상을 제고했고 작년부턴 부산, 광주 등에 지방 전자전을 개최하며 컴덱스, CES 등 매년 6회 정도의 유명 외국전자전 참가를 통해 신시장 개척과 신제품 개발 등을 촉진하였습니다.

일급제, 부품 수급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취약한 전자부품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품산업은 전자산업의 기반이면서 또 수급기업간 협력이 부품산업 발전에 전제가 되는 관계로 부품의 공용화를 위해 이미 4년전부터 부품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부품구매계획 세미나, 신개발 부품 총람 발간 등의 사업을 촉진하였습니다.

[문] 이제진흥회도 20년의 연륜을 쌓아 성년이 되었다고 보는데 성년의 진흥회로서 올해 중요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진흥회도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되어 이제 그 면모를 일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명칭을 「한국전자산업진흥회」로 바꾸면서 마크, 로고 등도 새롭게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은 우리 전자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21세기에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중소 전자부품 업계를 위해 개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판로 개척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신개발 부품을 DB로 제작 수요 업체에 서비스할 것입니다.

시대로 전환 되어간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전자산업은 구조전환기를 맞고 있는 데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엔화가 절하되고 원화가 절상되고있어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흥회는 첫번째로, 우리 업계가 견실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즉 올해는 22.5%의 성장과 수출 560억불 달성을 최소한의 목표로 정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정보통신 사업에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입부품의 국산화 촉진 등의 사

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금년을 「전자산업 세계화의 해」로 정해 세계적인 전자산업인 초청 대 강연회 등을 통해 경영의 세계화 마인드를 조성하고 전자산업 세계화 유공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통해 이를 촉진하고 우수제품의 해외 홍보를 강화해 우리 제품의 대외 인식도를 제고시키며 셋트와 부품업체 동반 해외진출을 확대해 경영의 세계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토록 하며 셋째로는 산업구조 전환 단계에서 누구보다 어려움이 큰 중소 전자 부품업계를 위해 개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우수개발 부품 콘테스트를 실시하며 국산화 부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전자부품, 신개발 부품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 서비스하고, 설명회, 전시회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넷째로는, 전자산업의 시장확대를 위해 공공 정보화의 장단기 계획을 조사해 업계로 하여금 개발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가전제품의 높은 특소세의 인하를 추진하고 한국전자전의 규모를 대폭 확대 개최하며 특히 지방 고객의 수요창출을 위해 작년의 부산전자전에 이어 올해는 광주에서 첨단 전자전을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사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며 부족한 생산 및 기술인력의 공급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째로는, 「전자 종합 전산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진흥회가 최소한의 인력과 경비로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 나가코자 합니다.

문 우리 전자산업이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와 21세기에 진흥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자산업은 그동안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보화 혁명으로 인한 2000년대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이끌어 갈 첨단산업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자산업이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기술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우리 전자산업의 생산구조를 정보 통신산업 중심으로 고도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가산업 사회의 정보화를 더 한층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정부투자 기관들이 전산화 및 정보화 투자를 확대해 나

“

국내 전자산업은 첨단 기술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생산구조를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고도화 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가고 정보산업의 핵심인 컴퓨터 H/W와 S/W, DB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품수급기업간 협력 증진을 통해 지금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온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산업은 제조원가 중 70% 이상이 재료비임을 감안하면 부품소재를 국산화하지 않고는 원가절감이나 품질 및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품소재 산업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부품소재의 활용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급기

업간 그리고 동종 부품업체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가장 취약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R&D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나가 그 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세계 각국은 시장개방과 자유경쟁을 통해 무역확대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중 가장 고도의 수단으로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의 해외이전 기피와 기술보호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업환경도 자체 기술력 확보 없이는 해결될 수 밖에 없는 기술패권주위에 의한 기술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과,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들과 협동하여 공동연구개발 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기업간에 상호 보완적 협력 연구도 필요하니다.

넷째로는,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시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 전자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 전자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도 시야를 넓혀 이러한 국제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본, 기술 등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진국들의 수입규제를 회피하는 한편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의한 경쟁력 제고, 현지 시장구조 변화에 탄력적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투자, 현지공장 설립 등 해외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제도상의 지원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지에서는 부품조달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세트업체는 부품업체와의 동반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본격화된 무한경쟁시대에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를위해 정부의 행정규제가 완화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과거에 규제해 오던 사항들을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환경부담금, 높은 관세율, 과당할 특소세, 통신사업 진입 등 여러 부문에서의 규제는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 추세를 거슬리는

것으로 우리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규제사항의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성 제도도 과감히 철폐하거나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업계를 대변하는 진흥회 입장에서 정부에 바라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세탁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해 주어야 합니다. 특소세 제도는 원래 사치품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이미 100% 이상 보급되어 생활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에 아직도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둘째,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의 전자산업도 이제는 더이상 노동력이 아닌 기술력에서의 비교우위가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저리의 연구개발 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인력의 공급을 크게

늘려 나가야 합니다.

셋째,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전자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사업에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정보화 수요가 활성화 되도록 세제·금융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장입지확보, 공장건설,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화라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정부도 규제완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많은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물류비용, 금리부담, 공장입지 비용 등 기업의 간접비용이 경감되도록 산업기반을 시급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에 의해 수차례 거론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산업기반으로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이 1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매년 그요금이나 적용범위와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있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